



# 자녀는 적이 아닙니다

송종웅/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이제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조금만 더 보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빨리 들어가!”

“조금만 더 보고 들어간다니까!”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아, 참!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래!”

“이 녀석! 정말 너 그따위로 굴래!”

“아이씨!”

흔히 보는 장면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화가 나고 아이는 아이대로 화가 나서 씩씩댄다. 마치 엄마와 아이가 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식이 원수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분명 자녀는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창조물이며, 많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서로 도와주어야 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이다. 그런 자녀와 적으로 지내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왕이면 적보다는 같은 편으로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부모와 자녀는 적이 아니고 한 편이며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사실 같은 편이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TV를 보느라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게 아니겠는가. 적이라면 TV를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그렇다면 우리 편인 자녀를 도와준다는 마음을 단단히 갖고 자녀와 대화를 해보자.

(아이 옆에 다가가 앉으며)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는가 보네.”

“네. 이거 참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봐도 재미있네. 그런데 오늘 네가 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영어하고 수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들어가서 할게요.”

“그렇래? 영어하고 수학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영어가 한 시간, 수학이 두 시간 정도...”

“그러니? 그럼 3시간이 걸리겠구나. 이 프로그램 끝나면 몇 시니?”

“9시.”

“그럼 12시가 넘어야 숙제가 끝나겠네. 그러면 피곤할텐데, 엄마가 걱정된다.”

“그렇긴 하네. 그래도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나면 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니? 그래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빨리 끝낼 수도 있겠지. 그럼 너무 늦지 않도록 해라. 네가 힘든 것을 보면 엄마도 마음이 아프니까.”

